

데스크 시국



김미은
여론매체부장·편집국 부국장

“괜찮으시면 인터뷰 때 옆에서 같이 들어도 될까요?”

난생 처음 보는 그가 말했다. 서울에 사는 그는 제주도를 거쳐 광주를 여행중이라고 했다.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10월 초 그를 만난 곳은 최재영 작가를 취재하던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전시실이었다. 최 작가는 지난 5월 아버지 최병오 사진 작가의 유품을 정리하다 1980년 5월 현장 사진을 발견, 137컷을 기록관에 기증했다. 조선대 미대 1학년이었던 그는 아버지와 함께 거리로 나왔었고, 기획전 '최병오, 최재영-1980년 5월 단상'전에서 5월 현장담은 회화 작품을 함께 전시중이다.

옛 전남도청 복원이 성공하려면

최 작가가 해주는 작품 설명을 귀기울여 듣던 그의 모습은 전시장에서도 인상적이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곁에 앉아 경청했고, 발표 현장을 보았는 지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인터뷰 후 윤공희 대주교의 1980년 당시 집무실이 그대로 재현된 6층 공간으로 그를 안내했다. 광주의 아픔을 이루만지려 방방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의 모습 등이 담긴 사진에 대한 설명도 했다. 예전에 이곳을 찾았

5·18 기록관에서 만난 청년

을 때 기록관 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였다. 나도 모르게 이 청년에게 오월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건 최 작가도 마찬가지였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여저 시원한 분수가 물줄기를 뿜어내는 5·18 광장을 걸었다. 전남 이곳에서는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이 열렸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최후 항쟁지인 전남도청 건물 일부가 철거·변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복원이 결정됐다.

2025년 개관을 앞둔 옛 전남도청은 원형복원이 핵심이지만 콘텐츠도 중요하다. 1980년과 '뚝같이만' 재현된 공간은 아무 감동도 없다. 공간의 상징성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곳에 담긴 이야기가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 힘은 경계 없는 소통과 자유로운 발상에서 나온다.

광주 내부의 시선이 아닌, 외부자의 눈으로 오월 광주를 이야기해줄기 기대하며 국내외 관계자를 초청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 역사에 대한 부채 의식 등을 고백하는 그들은 한없는 부담감을 안고 작업을 하는데, 종종 오월 관계자들이나 광주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예술가들의 자기 검열은 상상력의 한계를 가져오고 작품 완성도에 치명타를 입힌다. 뮤지컬 '레 미제라블'이 프랑스 혁명을 겪지 않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건 그 '보편성'에 있다. 역사적 사실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나는 오월과 관련한 코미디 작품이 나와도 좋다고 생각한다.

사실, 오월을 소재로 지금까지 생산된 문화예술 작품이나 콘텐츠는 그 세월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런 점에서 지난 6월 만난 광주시립발레단의 '디바인(DIVINE)'은 최근 몇 년 사이 관련한 콘텐츠 중 가장 인상적이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광주 출신 주제만

안무가가 풀어낸 '디바인'은 오월 광주를 넘어 국내외 인간 삶 어디에나 존재하는, 슬픔과 위로를 어루만지는 '애도의 작품'으로 손색이 없었다. 또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오월 어머니들과 일반 관객들이 함께 읽고 녹음한 '소리 없는 목소리' 전도 소박하지만 강렬한 경험이었다.

오월은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남도청 복원 소식을 듣고 올해 터진 오월 관련 단체들의 이전투구를 떠올렸다. 어쩌면 굶아 터져버린 부위를 제거하고 내 탓이로소이다를 외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 어느 단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걸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행여, 이번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또 다시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오월은 관련 단체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얼마 전 열린 충장축제를 친구와 함께 즐겼다. 이승환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버스킹 공연과 드론쇼도 즐겨 봤지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차가 다니지 않는 금남로 한복판에서 장기를 두던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머리가 하얀 70대 할아버지와 20대 청년이 장기판을 앞에 두고 몰두하는 장면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다. '우리', '함께'라는 말도 떠올라 그만 몽클레지고 말았다.

우리 '모두'의 것이 되지 못하고 '누군가만의' 전유물이 되었을 때, 오월은 역사에서 흔적을 감추버릴 지도 모른다. 흑평보다 무관심이 더 무섭다고 말한다. 우리 스스로가 오월의 주인이 될 때 5·18은 긴 생명력을 갖는다.

광주를 찾는 이름 모를 청년들에게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하며 오월에 대해, 광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 때 광주는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은펜칼럼



심명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순회사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잘 알고 있지만 훈맹정음(訓盲正音)이란 단어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11월 4일은 한글 점자의 날이다.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선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만들어 발표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평등권 실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책임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은 도서관계에도 반영되어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장애인 서비스를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을 설립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장애인 도서관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애인 도서관의 법률적 정의는 장애인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훈맹정음'과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얼마 전 광주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광주시립 점자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사서, 점역교정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인식에 대한 전환을 유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어울림의 공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점자도서관을 설립하고 특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같은 옷이라도 입는 사람에 따라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듯이 도서관의 서비스나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도서관과 이용하는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다.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접근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도서관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알 권리와 읽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보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해 이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서비스는 그 관심과 중요도에 비하여 성과가 미비하다.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서비스 관련 분야에 도서관 예산의 1%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법적 기준에 따른 필수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장애인 코너를 마련한 도서관도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보조공학기인 확대경을 비롯해 대체 자료, 큰 글자책 등을 비치하여 제공하는 정도이다. 이는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들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법의 모호함으로 인해 장애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정보 이용의 소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공공 도서관에서의 시각장애인 서비스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장애인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체 자료로서 점자도서, 녹음도서, 보이스가이드 확대도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공공도서관에서 대체 자료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특히 담당자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종 장애로 인해 일반 매체를 통한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체 자료 제작 보급의 확대와 함께 특수영역에 근무하는 전담 인력 및 정보 소외 계층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문교육이 실시될 때 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이용자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기고



김진희
광주보건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최근 들어 연예계와 의료계 등의 마약범죄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참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마약과는 거리가 멀어' 등 대부분 관대한 편이다. 이처럼 사회의 핫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관대함을 틈타 마약 등 약물 중독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특히 마약 중독이 대중화·일상화·조직화 되면서 급기야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되는 등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7~2022년)간 전체 마약류 사범이 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독성, 의존성 등 마약류 부작용 및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집계 결과 2022년 검거된 마약사범 1만 2387명 중 10대는 294명 (2.4%)으로 2018년 104명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약류 취급자는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및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중독이란 마약, 알코올 등 약물에 의존하는 습관성

중독은 만성 뇌질환...전문가 양성 절실

물질을 지속적으로 찾고 금단 증상 때문에 복용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뇌의 기능 중 기억과 감정 호르몬 등을 조절하는 곳이 변연계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이곳에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인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생성된다. 이 때 느끼는 경험을 통해 다시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 보면 뇌에서도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셔야만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모든 중독의 공통사항으로 술, 담배, 마약 등 물질 중독과 게임, 도박, 스마트폰과 같은 행위 중독도 마찬가지다. 중독은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지나치게 빠져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에도 불구하고 쾌감 혹은 만족감을 주는 것에 강박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만성적 뇌 질환이다. '조절 능력의 상실'은 중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다. 소주 한 병만, 1차 술자리만, 한 시간만, 10만원만 등 사용량, 시간, 비용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를 테면 대표적인 마약류라고 할 수 있는 필로폰의 경우 혈관을 통해 0.03mg 투여했을 때 엔도르핀의 양은 성 행위시 오르가슴을 느낄 때 나오는 양의 최소 13배에 달하며 최소 6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쏟아져 나온다. 이런 극한의 쾌감을 맛보면 마약류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처럼 중독이라는 병은 뇌의 쾌락 중추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단순한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치료가 힘들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중독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조절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이런 착각은 비상수 없는 중독의 미로에 빠져드는 블랙홀인 셈이다. 현재까지 물질 중독이든 행위 중독이든 중독을 완치할 수 있는 약물학적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전문가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고 회복을 위한 원칙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독자를 구해내는 첫 번째 수단은 주변의 관심과 관찰이라고 한다. 모르핀, 헤로인,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에 중독된 경우 다른 어떤 약물보다 극심한 금단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피해 망상, 환청, 환시 등 물론 심각한 중독적 공격성을 보여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이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중독자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치료와 회복의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재활, 치유를 지원하는 교육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같이 심각한 중독자들의 치유와 재활을 돕기 위해 광주전남지역에 최초로 중독재활복지학과가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보건대학교에 신설된 중독재활복지학과는 중독 재활 및 복지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현대사회의 중독과 복지 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졸업후 이들이 중독 재활 전문가로 우리지역 곳곳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社說

광주 찾은 인요한 혁신위...행동으로 증명해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취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그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광주 방문에는 혁신위원 12명 전원이 동행해 인위원장의 '호남 사랑'을 짐작하게 했다. 자칭 '순천 촌놈'이라는 그는 1980년 5·18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시민군 통역을 자처해 외신기자들에게 광주의 참상을 알릴 정도로 호남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 왔다.

그런 만큼 5·18민주묘지 참배는 취임때부터 어느정도 예상됐었다. 인 위원장은 행방불명자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해 2020년 8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무릎 사과'를 연상시켰다. 인상깊은 점은 유대인의 표현을 빌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말과 함께 '광주의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는 어디든 가서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다. 5·18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 아직도 완전한 전국화가 안 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 진정성을 느끼게 했다.

5·18 공법단체들이 건의한 5·18 정신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꼭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지역에선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인 위원장의 진정성은 충분히 알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광주 방문을 동서 화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위한 '서진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의구심을 떨쳐 내려낸 실질적인 호남 챙기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인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대통령에 할 말은 한다'고 말했다. 여차피 결릴 것도 없는데 못할 말이 있겠느냐고 했는데 그런 정신으로 소신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 광주 방문이 '정치 쇼'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하길 바란다.

나주 동학사죄비 건립...한일 화해·상생 전기로

그제 나주시 죽림동 나주 역사공원에 '나주 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를 기리는 사죄비'가 세워졌다.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과 시민들이 뜻을 모은 결과물이다. 지난 2006년부터 전국 동학 유적지를 답사하는 '한일 동학기행'에 참여했던 일본 시민들은 이번 사죄비 건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118만 엔(1171만 원)을 먼저 기부했다. 이에 나주시와 한국 시민들도 동참해 마침내 사죄비를 건립할 수 있었다.

이노우에 가츠오 한일 동학기행 시민교류회 대표는 제막식에서 "사죄비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평화와 인권 확립을 향한 결의"라며 "일본인으로서 추도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사죄비 건립에 앞장선 나카츠카 아키라 나라여대 명예교수가 제막식 하루 전날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동학농민군 토벌 전담 부대였던 일본군 후비(後備)보병 제19 대대는 1895년 1-

2월 나주 호남초토영(현 나주초등학교)에 35일간 주둔하며 동학농민군을 잔혹하게 학살했다. 나가츠카 교수가 발굴한 쿠스노키 상등병의 '중군일지'에 일본군의 만행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일본인 명의로 동학농민군 희생자를 기리는 사죄비가 세워진 것은 국내에서 나주 주 처음이다. 일본 토벌군에 의해 농민군들이 학살당하지 128년 만의 일이다. 비문은 "한일 두 나라 지식인과 시민들간의 우정과 연대를 통해 세워지게 된 이 조그마한 사죄의 비가 지식인과 시민 연대를 뛰어넘어 동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라고 양국 시민들의 바람을 명기했다.

사죄비 건립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경색된 한일 관계 속에서 이뤄진 의미있는 결실이다. 한일 지식인과 시민들이 뜻을 모아 세운 사죄비 취지를 살려 두 나라의 화해와 상생을 모색하는 전기(轉機)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가을에서 초겨울을 제철로 하는 농작물 중 대표적인 것이 토란이다. 고구마와 감자 같은 서루(땅속 작물) 중 하나로 영양가도 높고 맛이 좋아 인기 있는 작물이다. '흙 속의 알'이라는 뜻으로 토란(土卵)으로 불리고, 연잎처럼 잎이 퍼졌다고 해 토란(土蓮)이라고도 한다. 잎은 말려서 나물을 해 먹고, 줄기(토란대) 역시 탕에 넣거나 삶아서 나물로 먹는다. 한약재로도 쓰이는데 '우(芋) 또는 '토지(土芝)'라고 한다.

한데 일상에선 토란이 라는 이름 대신 '알토란'으로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다. 엄밀하게 구별

알토란

하면 토란은 작목을 대표하는 이름이고, 알토란은 '너저분한 털을 다듬어 깨끗하게 만든 토란'을 이르는 말인데도 말이다. 실제로 막 깨낸 토란은 흙이 묻어 있고 잔뿌리가 많아 너저분하다. 수확할 때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다. 흙을 털어 내고 잔뿌리를 깨끗하게 다듬어야만 제 모습인 '알토란'이 된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알토란'이다. 알토란에서 '알'은 '겉을 덮어 쓴 것이나 말린 것을 다 제거한'의 뜻의 접두사로 알몸과 알바늘, 알밥의

겨지며 미움을 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셈이다.

'쪽정이가 머리 드는 하면 토란은 작목을 대표하는 이름이고, 알토란은 '너저분한 털을 다듬어 깨끗하게 만든 토란'을 이르는 말인데도 말이다. 실제로 막 깨낸 토란은 흙이 묻어 있고 잔뿌리가 많아 너저분하다. 수확할 때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다. 흙을 털어 내고 잔뿌리를 깨끗하게 다듬어야만 제 모습인 '알토란'이 된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알토란'이다. 알토란에서 '알'은 '겉을 덮어 쓴 것이나 말린 것을 다 제거한'의 뜻의 접두사로 알몸과 알바늘, 알밥의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